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9. 18.(화) / 총 18매(본문 3, 첨부 15)
담당 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 과장 이용욱, 사무관 서지웅, 주무관 김상용 ☎ (044)201-3875, 3887, 3883
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담당자	- 휴게시설계획팀장 김현주, 차장 김승홍 ☎ (054)811-2310, 2311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스마트 여행·교통·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 추진

- ◆ 국토부·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중장기 마스터플랜(‘18~’ 22) 발표
- ◆ 휴게공간 입체화·테마존 등 고객 중심 휴게 공간 조성
- ◆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거점으로 개발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 시설 확대
- ◆ 로컬 직매장,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지원하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 고속도로 휴게소가 고객 중심의 휴게공간을 갖춘 환승거점이자 로컬 직매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한다. 내년부터는 휴게소 음식의 모바일 주문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완비되며,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도 새로 20개소가 추가된다. 또한, 각종 먹거리와 커피의 품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저렴해지는 등 한층 스마트한 휴식공간으로 변모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공공성’과 ‘고객가치’를 중점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1970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태동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매년 6억 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익시설로서 50여 년간 수많은

발전과 개선을 통해 해외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쾌적하고 문화와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휴게소 개수) '71년 4개 → '80년 38개 → '90년 55개 → '00년 100개 → 현재 220개

** 화장실문화 개선운동, 유명 브랜드 도입, 잡상인 철거, 알뜰주유소 도입, 흡연실·수유실 설치, 조리실의 해썹HACCP 도입 등

- 다만, 일부 음식들은 여전히 특색 없고 비싸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성 노력도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더 맛있고, 편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휴게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국토부와 도공은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미래상을 「사람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허브」를 설정하고 미래 휴게시설의 3대 핵심기능을 ①휴식과 여행의 거점, ②스마트 교통의 거점, ③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휴식과 여행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휴게공간 입체화·테마 존 등 신개념 휴게시설 모델개발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표준모델 구축 ▶국민 먹거리 및 저렴한 커피 개발 ▶매장 구성 및 업종 다양화 등 6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 건물, 주차장 등의 이용자 편의중심 재배치,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국민 먹거리와 커피 개발, 식음위주 매장을 캐릭터 샵, 사후 면세점, 드라이브 쓰루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스마트 워크센터, 캡슐호텔 등을 설치하여 휴게시설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여행과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 둘째, 도로 공간의 가치 향상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와 공공교통의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휴게시설에 미래기술을 접목하고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교통의 이동거점 모빌리티 허브 휴게시설 구축 ▶휴게소형 하이패스IC 확대 ▶수소차 등 친환경 충전 기반시설 구축 등 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 대도시 인근에 트램, 시내·외 버스, 차량 공유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교차하여 환승이 가능한 이동거점 휴게시설을 개발하고 휴게소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 IC를 확대하여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한다.
- 또한, 휴게시설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충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휴게시설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도 및 지역 공유형 휴게시설 설치 ▶화물차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매장 도입으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편안하고 즐거운 안심 휴식 공간 조성 등 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 국도 및 지방도에서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 국도 및 지역 공유형 휴게시설로 개발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과 편의향상을 위해 샤워, 수면, 세탁실 등이 구비된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매장 신규 도입과 청년창업 매장의 확대도 추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몰카 탐지장비 보급과 합동 점검반 운영으로 안심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 마지막으로 휴게시설 운영혁신을 위하여 ▶휴게시설 임대입찰 및 평가제도 개선 ▶입점매장 수수료를 인하를 통한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공동구매 및 PB상품 개발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 ▶민관 협력 신사업구조 개발 등을 추진하여 휴게시설 운영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별첨>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중장기(2018~2022) 마스터플랜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중장기(2018~2022) 마스터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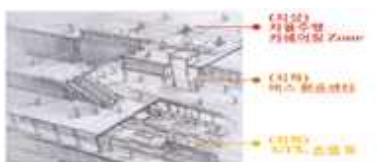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정책 방향) 공공성 회복이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원리로 작용
- (소비 트렌드) 미래사회 변화요인은 고령화 심화, 여가·문화수요 증가, 거대도시 형성, 자원부족, 자율주행 등 첨단 ICT기술 등
 - * 소비패턴변화(1인가구, 여가), 친환경, 이동방식·수단 다양화에 대응
- (유통 산업) 상업시설은 체류성과 여가목적이 확대된 엔터테인먼트몰로 진화
 - * 다양한 장르의 업종, 전 연령대가 즐기는 쇼핑휴식공간으로 변화

◆ **공적역할의 확대, 도로의 공공성 강화 등 정부정책 수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휴게시설 혁신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효율적 시설개선, 공공성 강화, 미래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한 미래형 휴게시설로 도약

2. 휴게시설의 중장기 미래상 수립

사람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허브"

휴식의 즐거움을 보장하는 휴식·여행의 거점	도로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교통의 거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
 ▶ 사람중심 휴게공간배치 ▶ 다양한 장르의 매장 ▶ 핵심경쟁력(품질) 강화	 ▶ 공공교통 통합 플랫폼 ▶ 스마트 서비스 운영 ▶ 신재생 에너지 선도	 ▶ 지역기반 공공성 강화 ▶ 친환경건축 섹터 확대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 대내외 환경분석, SWOT분석, 휴게소 이용객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래상 설정

3. 혁신 전략

○ 휴게소 혁신 4대 전략 20개 실행과제의 5개년('18~'22년) 추진계획

목 표

“고객가치”와 “공공성”을 보유한 “스마트 휴식공간” 창출

추진전략	실행과제(20개)
고객중심 휴게시설	① 휴게공간 입체화·테마존 등 新 휴게시설 모델 개발 ② 사람·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표준모델 구축 ③ 국민먹거리 및 저렴한 커피 개발로 핵심 경쟁력 향상 ④ 명품음식 개발로 맛 집 수준의 음식품질 개선 ⑤ 고객 수요를 반영한 매장 구성 및 업종 다양화 ⑥ 캡슐호텔·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여행 및 비즈니스 거점화
미래기술 융합	⑦ 모빌리티 허브 휴게시설 구축, 이동거점 기능 강화 ⑧ 휴게소형 하이패스 IC 확대 ⑨ 고속도로 통합 서비스 앱 개발, 스마트 서비스 제공 ⑩ 전기·수소 친 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 ⑪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자립형 휴게시설 설치
공공성 강화	⑫ 화물차 편의시설 표준모델 화물차 라운지 설치 ⑬ 복합서비스센터 등 신개념 화물차 휴게시설 개발 ⑭ 국도 및 지역공유형 휴게시설 확대 설치 ⑮ 사회적기업, 청년창업으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⑯ 편안하고 즐거운 안심 휴식공간 조성
운영방식 혁신	⑰ 입찰 및 평가제도 개선으로 창의성과 공공성 강화 ⑱ 입점 수수료를 인하로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⑲ 공동구매 및 PB상품 개발, 유통구조 효율화 ⑳ 민관협력 신사업구조 개발로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

4. 주요 과제별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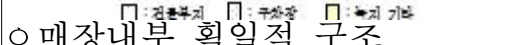
전략 1. 고객 중심의 휴게시설 조성

□ 먼저, 휴식과 여행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휴게공간 입체화 · 테마존 등 신개념 휴게시설 모델개발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표준모델 구축 ▶국민 먹거리 및 저렴한 커피 개발 ▶매장 구성 및 업종 다양화 등 6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① 현재 대부분의 휴게시설은 사다리꼴 모양의 정형화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식음매장 위주로 구성되어 공간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아 다변화된 고객 니즈의 수용에 한계가 있다.

⇒ 앞으로는 정형화된 형태 및 일률적 시설물 배치에서 탈피하고, 매장내부를 테마구역화 하는 등 입체적 휴게소 개발을 추진한다.

【매송(휴) 시범사업('18년)→ 12개소로 확대('22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1. 휴게공간 차별화	○ 정형화된 형태로 표준화 	○ 입체개발로 휴게공간 차별화 
	○ 매장내부 획일적 구조 	○ 매장내부 테마구역화 * 신개념휴게소를 12곳으로 확대('22년)

② 기존 휴게소 주차장은 차량과 보행통로가 분리되지 않아 차량 및 보행자 혼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이를 반영해 보행자통로 설치, 소·대형 동선 분리, 주차폭 확대, 주차 안내시스템 구축 등 사람 중심으로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편한다.

【주차장 표준모델 29개소 적용('18년)→ 49개소로 확대('22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2. 주차장 표준모델 구축	○ 시설 · 공급자 중심 주차장 ○ 휴게소 주차장(개선 전)	○ 사람 · 수요자 중심 주차장 ○ 휴게소 주차장(개선 후) * 주차장 표준모델 49개소 적용('22년)

- ③ 휴게소는 연간 6억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지만 음식의 맛과 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운영업체의 특성과 조리법 등에 따라 품질과 가격 차이가 큰 편이다.

⇒ 내년부터는 표준레시피 적용이 적합한 휴게소의 대표메뉴 6종을 선정하여 맛과 품질을 표준화하고 저렴하고 품질좋은 커피도 확산할 예정이다.

* 대표메뉴 6종 :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돈가스, 비빔밥, 소고기 국밥

【국민먹거리 및 ex커피 개발('18년)→ 전국 확대('19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3. 국민 먹거리 및 국민커피 개발	○ 대표메뉴 품질 · 가격 차이 낮은 수준의 음식 맛과 품질 ○ 고품질 · 고가 브랜드 커피	○ 대표메뉴 국민먹거리 표준화 휴게소별 명품음식 개발 차별화 ○ 고품질 · 저가 커피 ex-cafe 개발 * 국민먹거리 및 국민커피 전국확대('19년)

- ④ 휴게시설은 전국에 산재하지만 지역 농산물과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음식을 제공하는 휴게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내년에는 지역 농산물을 휴게소에서 직접 맛볼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향토 명품음식을 개발하여 차별화할 계획이며, 쌀 · 김치 등 주요식재료에는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1휴게소 1명품음식 개발('18년) → **exFOOD** 선발 및 확산('19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4. 음식품질 경쟁력확보	○ 음식의 다양성과 차별성 낮음 ○ 주요식자재 자율 품질관리  	○ 1휴게소 1명품음식 ○ 품질관리기준 마련·적용    * 명품음식 선발 및 확산('19년)

⑤ 외국인 도로 이용자 증가, 여가문화 수요증가, 인테리어 고급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식음위주의 기존 매장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 앞으로는 외국인 도로 이용자를 위해 특산품, 명품과자,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사후 면세점을 도입하고, 가족고객과 2~30대 젊은 계층(키덜트족)을 위한 캐릭터 전문점을 도입하며, 시간 효율성이 중요한 30~40대,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배려한 드라이브-쓰루형 매장도 설치된다.

【관광지 경유휴게소 사후면세점·캐릭터점 5개소 설치(' 22년)
드라이브-쓰루 시범사업(' 19년) → 7개소로 확대(' 22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5. 매장구성 다양화	○ 독창적인 캐릭터 샵 및 드라이브-쓰루형 매장부재	○ 독창적인 캐릭터 샵 및 드라이브-쓰루형 매장설치   * 사후면세점·캐릭터점 설치('22년)

- ⑥ 최근 건축 디자인 특화, 소형 테마·체험시설 설치 등 휴게시설의 차별성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그간 휴게시설의 지리적 잠재력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캡슐 호텔, 체험관, 캠핑장 및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설치하여 휴게시설을 여행과 비즈니스의 목적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언양휴게소 시범사업('18년) → 기능확대 시설 6개소로 확대('22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6. 여행거점 테마개발	○ 여행거점기능 부족 지역문화 테마개발 초기단계 	○ 캡슐호텔, 캠핑장 등 여행거점 지역·자연·문화 테마개발 확대  * 기능확대 시설 6개소로 확대('22년)

전략 2. 미래 기술이 융합된 휴게시설 설치로 4차 산업혁명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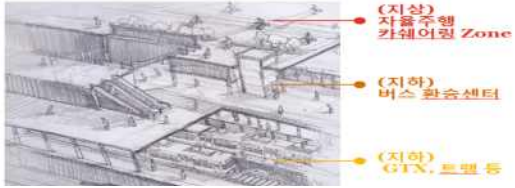
- 둘째, 도로 공간의 가치 향상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와 공공교통의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휴게시설에 미래기술을 접목하고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교통의 이동거점 모빌리티 허브 휴게시설 구축 ▶휴게소형 하이패스IC 확대 ▶수소차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 ⑦ 현재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해 고속버스 환승휴게소를 8곳 운영 중이나, 모든 이동수단을 통합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확대에 따른 소유 자동차 감소와 공공이동 서비스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고속버스 환승 8개 휴게소 : 횡성(양방향), 선산(양방향), 인삼랜드(양방향), 섬진강(양방향)

⇒ 대도시 인근에 트램, 시내·외 버스, 카셰어링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교차하여 환승이 가능한 휴게소형 공공교통 이동거점을 개발하여 지·정체 개선 및 이용고객 편의를 제고를 도모한다.

【모빌리티 허브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18년) → 운영개시(' 22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7. 모빌리티 허브구축	○ 휴게소 내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 8개소 운영중 	○ 트램, 카셰어링, 시내외버스 공공교통 허브 구축  * 복합환승센터 운영개시('22년)

⑧ 현재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와 이용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하이패스 IC를 도입하여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 공용 중인 하이패스IC는 11개소로(휴게소형 9, 본선형 2개소)

⇒ 휴게소형 하이패스 IC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하이패스 IC 설치 휴게소에 시내·외 버스 환승센터도 설치를 추진하는 등 이동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휴게소형 하이패스IC를 12개소로 확대(' 22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8. 휴게소형 하이패스 IC 확대	○ 휴게소형 하이패스IC 9개소	○ 휴게소형 하이패스IC 확대  * 휴게소형 하이패스IC 12개소로 확대('22년)

- ⑨ 현재 사전주문으로 휴게소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일부 휴게소(8개소)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며, 고속도로내 산재한 다양한 앱(App)이 통행료·휴게소·교통 정보 등을 개별 제공 중이다.

* 개별 App 운영 : 교통정보, 통행료미납정보, 휴게소정보, 여행정보, 사고제보

⇒ 내년부터는 일부에 한정된 사전 주문 서비스가 전국 휴게소로 전면 확대되고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는 등 고속도로 관련 온라인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 주문 앱 개발('18년) → 통합 앱 개발 및 서비스('19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9. 통합 서비스 앱 개발	○ 일부 휴게소만 사전주문 ○ 교통, 통행료 등 개별 앱 ○ 휴게시설 공간정보 미구축	○ 사전 주문 서비스 전국 확대 ○ 고속도로 관련 앱 통합 ○ 휴게소 공간정보 구축  * 통합 앱 개발 및 서비스('19년)

- ⑩ 심각한 대기질 개선 및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고속도로에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 앞으로 친환경차의 중장거리 운행기반 구축을 위해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은 모든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는 이용수요 및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60개소에 확충될 예정이다.

【수소차 충전소 8개소 설치('18년) → 60개소로 확대('22년)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100% 설치('19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10. 친환경 충전 인프라 확충	○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부족 - 전기차 충전소 174개소 설치 - 수소차 충전소 미설치	○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 전기차 충전소 100% 설치('19년) * 수소차 충전소 60기 설치('22년) 

- ⑪ 현재 도공은 2030년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달성을 목표로 태양열, 연료전지 발전으로 20% 내외의 에너지 자립도를 달성 중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도공 에너지 자립도 계획 : ('18) 20% → ('22) 64% → ('30) 100%

⇒ 이에 따라 태양광 외 지열발전, 융·복합형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 저장장치) 발전시설도 도입하는 등 휴게시설 에너지 자립도를 30% 이상 상향시킨 에너지 자립형 휴게시설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설계반영('18년) → 추풍령 등 신·재축 휴게시설 8개소('22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11. 에너지 자립형 휴게시설 구축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 지열,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생산(에너지 자립도 20% 이내)	○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추가 ○ 연료전지 등 융복합 에너지 생산(에너지 자립도 30% 이상)  * 에너지 자립형 휴게소 8개소 구축('22년)

전략 3.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휴게소

- 셋째,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휴게시설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도 및 지역 공유형 휴게시설 설치 ▶화물차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매장 도입으로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편안하고 즐거운 안심 휴식 공간 조성 등 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 ⑫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 점유율(28.5%)대비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 휴식공간 확충이 긴요한 실정이다.

* '17년 교통량 조사결과 화물차 교통량은 28.5%, 노선별로 일평균 13,527대 운행

⇒ 내년까지 화물차 교통량, 주차장, 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과 편의향상을 위해 샤워, 수면, 세탁실 등이 구비된 화물차 라운지 20개소가 별도로 신축된다.

* 개별 칸막이 샤워실, 수면실과 이격된 휴게실, 침대형 수면실 등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

【화물차 라운지 10개소 설치('18년) → 10개소 추가('19년)】

구 분	현 행	개 선 후
12. 화물차 편의시설 확충	○ 샤워 등 운전자 편의시설을 갖춘 화물휴게소 21개소 운영 	○ 화물차 복합서비스센터 도입 일반(휴) 화물편의시설 20개 추가  * 화물차 편의시설 20개소 추가(~'20년)

⑬ 운전자 편의시설, 정비소 등이 부족한 기존 화물차 휴게소는 도로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영세 화물차 운전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

⇒ 화물차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화물차 정비 및 세차가 가능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무료 검진), 화물차량 검사까지 지원 되는 신개념 복합 화물차 휴게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타당성 분석('18년) → 사업지 선정 및 설계(~'20년) → 추진('21년)】

구 분	현 행	개 선 후
13. 신개념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	○ 화물 운전자 복합서비스 미제공 - 화물차 검사소, 건강검진, 정비·세차장 등 부재	○ 화물 운전자 복합서비스 제공  * 화물 운전자 복합서비스 제공('21년)

- ⑭ 현재 국도와 지역 관광지에 인접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드물어 휴게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적 경제 협력이 활발하지 않다.

⇒ 앞으로는 고속도로 노선 기본설계 단계부터 국도와 인접한 휴게 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휴게소 인근 지역명소, 관광지 등을 도보 연결로 및 하이패스 IC 등으로 연결해 지역명소 접근성을 개선 하며, 직거래 방식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도 확대된다.

【국도·지역 공유형휴게소 2개소('18년) → 7개소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51개소('18년) → 76개소로 확대('22년)】

* 현재 논공(대구방향)휴게소는 국도 5호선에서 진입해 주유, 휴게소 이용이 가능하며, 강천산(광주방향)휴게소는 인근 지역명소인 순창 고추장마을과 도보로 연결

구 분	현 행	개 선 후
14. 지역 공유형 휴게시설 확대	○ 농산물판매점 노후화, 전 근대적 운영 ○ 국도·지역공유형 개발 미흡	○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전환 ○ 국도·지역공유형 시설 확대  * 국도·지역 공유형 7개소로 확대('22년)

- ⑮ 청년 실업률 증가('18.6월 9%, 38.8만명) 해소를 위해 휴게시설 인프라와 청년 아이디어를 접목한 청년창업매장 및 푸드트럭을 운영 중이나,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휴게소 입점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23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청년 창업을 대폭 지원한다.

【문경 사회적기업 매장 1호점 개점('18년)→ 8개소로 확대(~'20년)
청년 창업매장 41개 및 푸드트럭 37대 추가(~'22년)】

* 휴게소 청년매장 : ('18) 79개 → ('22) 120개 / 푸드트럭 : ('18) 13대 → ('22) 50대

구 분	현 행	개선 후
15.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 위주 일자리창출 (청년매장 79호, 푸드트럭 13대) 	○ 사회적기업 매장도입, 취약 계층(여성가장 등) 일자리창출  * 사회적기업 매장 10개소로 확대('20년) * 청년매장41개 및 푸드트럭37대 추가('22년)

- ①⑥ 몰카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심화로 휴게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30분 이상 충분한 휴식 시간을 유도하기 위해 녹지와 자연쉼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용객 설문결과('18.3) 신규도입 희망시설 1위는 쉼터(27.2%)

⇒ 앞으로는 몰카 탐지장비 보급과 합동 점검반 상시 운영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휴게소를 구현하고, 파고라, 벤치, 스트레칭 구역 등 야외 휴식공간을 확대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안심 휴식 공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몰카 적발시 운영자 패널티 부여 등 책임관리('18년) 및 자연·체험형 쉼터 2개소('18년) → 25개소 추가설치(~'22년)】

** (현행 자연체험형 쉼터) 덕평휴게소 애견 테마파크, 벌곡휴게소 체험형 교통테마파크

구 분	현 행	개선 후
16. 몰카안심 및 야외쉼터 확 충	○ 몰카 운영업체 자체관리	○ 탐지장비 구입, 상시점검강화 
	○ 설문 결과, 야외쉼터확충 요구가 응답자의 1위 차지(27%)	○ 벤치 등 야외 휴식공간 확충 체류시간 확대(23→30분)  * 자연·체험형 쉼터 25개소 추가설치('22년)

전략 4. 사업구조와 운영방식 혁신으로 휴게시설 효율성 향상

□ 넷째로 휴게시설 운영혁신을 위하여 ▶휴게시설 임대입찰 및 평가제도 개선 ▶입점매장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공동구매 및 PB상품 개발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 ▶민관협력 신사업구조 개발 등을 추진하여 휴게시설 운영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⑰ 현재 도공의 대다수 휴게시설의 운영은 민간 임대방식(85%)이므로 현행 입찰제도와 평가제도가 개선된다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공공성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

* 현행 도공 휴게소는 총 195개소(임대 166, 민자 26, 직영 3)

⇒ 이에 내년부터는 임대입찰시 계량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외에 일자리 창출, 매장구성 등 비계량 평가항목이 추가되며, 평가제도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국민먹거리 판매, 청년창업 확대 등 운영업체평가의 공공성 평가항목(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입찰·평가제도 개선연구('18년) → 개선방안 적용('19년)】

구 분	현 행	개 선 후
17. 입찰평가제도개선	○ 임대입찰시 계량 사업수행능력평가(신용등급, 매출액 등) ○ 운영업체 공공성평가항목(비중) 미흡	○ 비계량 평가항목 추가로 공공성과 창의성을 확보 ○ 정규직 일자리 창출, 공공구매 실적 등 공공성 평가확대 * 입찰·평가제도 개선방안 적용('19년)

⑱ 휴게시설 운영업체가 입점매장에 부과하는 고율의 수수료로 입점매장의 부담이 증가하여 음식 맛과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나, 주무부처와 도공의 입점 수수료율 인하개입은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위반소지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 * '18년 현재 운영업체의 직영매장은 45% 수준이며 입점 수수료율은 46% 수준
- * 도공 휴게소의 3,568개 매장중 직영매장 51%(1,803개), 입점매장 49%(1,765개)

⇒ 이에 따라 음식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재계약 시설의 한식당 및 라면·우동매장, 편의점 등 주요매장은 운영업체가 직영하도록 유도하고, 매장운영의 적정성 평가지표 가중치도 상향(7점에서 25점으로)하여 자발적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직영매장 60% 이상, 입점 수수료율 39% 이하('19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18. 입점 수수료율 인하	○ 고율의 수수료로 입점매장 부담 - 직영매장 비율: 45% 수준 - 입점 수수료율: 46% 수준	○ 입점매장의 부담감소로 맛과 품질 제고('19년) * 직영매장 비율: 60%로 확대 * 입점 수수료율: 39%로 인하

①9 휴게시설 전체 원자재 유통관련 매출은 증가 추세이나, 운영업체별 자체 유통경로를 통해 원자재를 수급하고 있어 가격 상승 또는 품질의 미검증 문제 등이 계속 문제시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생수 등 완제품의 공동구매제를 시행하고 식자재 등으로 구매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마케팅과 유통비용이 절약되는 자체 PB 브랜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동구매 및 PB상품 개발(' 20년) → 단계적 확대(' 22년)】

구 분	현 행	개선 후
19. 공동구매 및 PB상품 개발	○ 운영업체별 자체 유통 - 대량구매의 이익이 낮아 부담	○ 완제품, 식자재 등 대량구매로 원가인하 및 고객환원 ○ PB상품 개발로 독자적 맞춤형 상품 공급 * 공동구매 및 PB상품 개발로 유통구조 효율화('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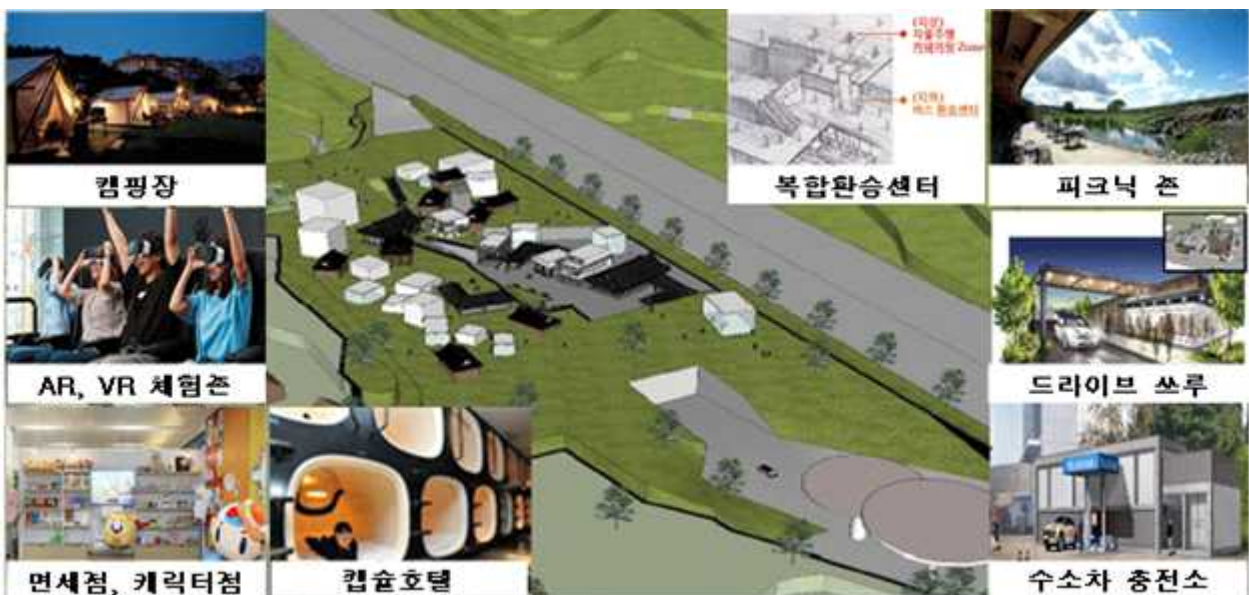
- ②0 현행 휴게시설은 대부분 임대 또는 민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방식은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니즈 충족과 입지 잠재력 발휘에 한계를 보이며, 민자방식은 창의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대전략 적용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 이에 임대방식과 민자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민관협력 신사업구조** 모델을 검토하여 **최적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지역사회가 휴게소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지역주민 대상펀드**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기회 제공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민관협력 신사업구조 기본계획('19년) → 시범사업 추진('20년)】

구 분	현 행	개 선 후
20. 민관협력 신사업 구조 개발	○ 휴게소는 민자 또는 임대 운영 방식 뿐 ○ 지역사회(주민)이 휴게소 개발과 운영에 미 참여	○ 민자방식과 임대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협력구조 개발 ○ 지역사회와 주민이 휴게소 개발과 운영에 참여 * 민관협력 신사업 시범추진('20년)

휴게시설의 미래상



끝.